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전기홍-**

비록 페이지수는 적지만 알차고 훌륭한 이야기가 많아서 직원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이번 호에도 주옥같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중 여름철이라서 그런지 '건강한 여름을 위한 전라북도 보양식 열전'을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예로부터 전라도 사람들은 식도락의 본향이라 할 만큼 좋은 음식을 많이 해먹는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고창 풍천장어, 남원 흙돼지 허브 삼겹살, 전주 민어탕...등등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많은 줄 미처 몰랐고 생각만 해도 저절로 군침이 도네요. 전라북도 보양식 음식점을 꼭 찾아서 몸보신과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해봅니다. 다음 호는 벌써 가을의 시작 9월호이네요.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워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  사람」을 통해 가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제일 먼저 느끼게 해주세요.

최남이-

특별기고 '언론과 언론 아닌 것 사이'를 읽고 최근 들어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가 언론중재법상의 언론은 아니며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방송, 잡지, 뉴스통신, IPTV 등을 제외하면 언론의 지위를 받지 못하며 언론중재법상의 언론도 아니게 규정되어 단지 정보로 분류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종 언론매체들이 등장해도 모두가 다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만큼 잘 파악하고 알아서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언론과 언론 아닌 것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해야 책임소재와 법적분쟁이 줄어들리라 봅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언론중재위원회
블로그 개설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